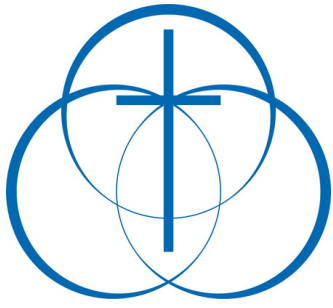




글로벌 감리교회 예전 초안

10/2026

글로벌 감리교회 예전 초안

인사 및 소개

글로벌 감리교회는 교회의 예전적 증언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삶의 중심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응답하여, 송영, 곧 “바른 찬양”으로 교회를 인도합니다. 예전은 우리의 교리를 지키고 가르치며,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모여 성령의 능력으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보좌 주위에 모인 성도들의 교제와 우리를 연합시키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의 핵심은 교회의 공동 기도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형성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형성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예배 생활을 통하여 성경적 거룩함을 온 세상에 펼치려는 우리의 사명 가운데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초안 자료를 내어 놓습니다.

집필진은 웨슬리안으로서 우리의 교리적 정체성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의 예전적 온전함을 지킴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데 헌신해 왔습니다. 이 예전들은 *Book of Common Prayer*를 통하여 우리의 웨슬리안 유산을 회복하려는 헌신을 반영하면서도, 다양한 글로벌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연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 예전 초안*에는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일상 사역에서 사용하는 주요 예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예전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 모음집은 우리가 교단으로서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이 자료는 전 세계의 현장 실무자들과 사역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교단 전반의 지도자들이 이를 검토하였으며, 이제 교회가 지역적 상황에 맞게 이 예전들을 사용하고 의견을 제시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예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글로벌 감리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테시아 L. 멜러리 목사(박사)

예전 소위원회 위원장

연대 협의회

목차

글로벌 감리교회 예전 초안

섹션 I - 세례

- 서문 및 안내
- 거룩한 세례 성례전
- 입교 예식
- 세례 서약 재확인 의 예식.

섹션 II - 성찬

- 서문 및 안내
- 성찬 성례전 I
- 성찬 성례전 II - 약식 예전
- 성찬 성례전 III - 즉석 예전을 위한 지침
- 평신도 사역자가 봉헌된 성찬 성물 분배를 위한 예전

섹션 III - 기독교 장례 및 결혼

- 장례 서문 및 안내
- 죽음과 부활 예배
- 하관 위탁 예식
- 결혼 서문 및 지침
- 기독교 결혼 예식

섹션 IV - 개체 교회

- 교인 가입 서문 및 지침
- 교인 가입을 위한 예전

거룩한 세례 성례전

서문 및 지침

거룩한 세례는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거행하는 두 성례전 중 하나입니다(다른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존 웨슬리는 *세례에 관한 논문*에서 세례를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에 들어가게 하는 입문 성례"라고 기록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표징, 인침, 서약, 그리고 은혜의 수단"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영구히 의무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례 안에서 세례 받는 이는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그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고,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능력을 부여 받는" 것입니다(*글로벌 감리교회의 2024 교리와 장정*, ¶414).

이 예전의 사용은 예배의 다양한 상황과 양식에 맞게 조정될 수 있으나, 두 가지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외적이며 가시적인 표로서의 물은 거룩한 성경에 본을 둔 대로 성례전을 집행할 때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며, 침수(물에 잠김), 살수(물을 뿌림), 관수(물을 부음)의 형태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올바른 기독교 세례가 되기 위해서는 세례가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마태복음 28:19) 행해져야 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거룩한 세례는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베풀어지는 성례전입니다. 거룩한 세례만으로는 구원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세례 받은 유아들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양육되고 인도되며,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자신들의 세례를 입교로 확증해야 합니다"(*글로벌 감리교회 교리문답서* 41, 42). 이는 입교 예식(7 쪽)을 사용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목회자는 부모들에게 자녀의 세례를 미루지 않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거룩한 세례의 집행은 주일 아침이든 다른 예배 시간이든, 모인 회중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경우, 목사와 세례 후보자를 위해 특별한 조정을 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 중 일부가 반드시 참석하도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로 들어가는 입문인 거룩한 세례는 한 사람의 일생에 오직 한 번만 행합니다. 이전에 이미 기독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세례 서약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느낄 경우, 사역자는 *재확인 의 예식*(10 쪽)을 사용하되, 그것이 추가적인 세례가 아니라 재확인 의 의식임이 분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거룩한 세례 성례전

서문 및 개회사

(후보자와 후원자는 집례자의 초청을 받아 예배당 앞에 서서 회중을 향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 내어 당신의 소유로 삼을 택한 백성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분과 완전한 연합 안에서 충만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양대로 왕국을 세우려 하여, 죄와 죽음을 세상에 들여왔습니다. “금홍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에베소서 2:4-9).

이 선물을 생각하며, 우리는 거룩한 세례를 받을 이 후보자들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세례의 물 가운데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고, 모든 죄에서 씻김을 받으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의 약속 안에서 은혜로 표를 받고, 교회 곧,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개

(후보자와 후원자는 계속 서서 회중을 향합니다.)

집례자: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세례를 받을 후보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 또는 후원자:

저는 (이름 입력) 을(를) 거룩한 세례를 위하여 소개합니다.

(세례 후보자가 신앙을 고백하는 성인이거나 분별력이 있는 아동인 경우, 이 섹션 아래의 ‘거절 선언과 서약’으로 계속합니다.)

세례를 받는 유아 및 어린이들을 위하여

(유아나 어린이가 없으면, 예전은 아래의 성인을 위한 순서로 계속됩니다.)

집례자가 유아 및 어린이의 후원자/부모에게:

글로벌 감리교회는 우리의 삶에 은혜를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유아와 어린이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환영하며 세례대 앞으로 맞아들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0 장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가복음 10:13-15).

오늘 부모와 후원자로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 앞에 나아와, *이 아이/이 아이들을* 대신하여 서약을 하며, 장차 *그/그녀/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입교를 받도록, *그/그녀/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약속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르심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를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

후원자/부모: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부 선언과 세례 서약

(성인인 세례 후보자, 분별력이 있는 아동, 영아 및 어린이의 후원자 또는 부모를 위하여.)

교회를 대표하여, 초기 기독교의 관습과 웨슬리안 전통 안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마귀와 그의 모든 일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거부합니까?

후보자: **나는 그것들을 거부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분을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합니까?

후보자: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담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고백합니까?

후보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악과 불의, 억압에 저항할 책임이 있음을 받아들입니까?

후보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평생 그 안에서 행하겠습니까?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스스로 대답할 수 없는 거룩한 세례 후보자를 대표하는 이들에게는 다음 질문도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에서 *이 아이/이 아이들/사람(들)*을 양육하여, 여러분의 가르침과 모범을 통해 *그가/그녀가/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인도하고,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겠습니까?

후원자: **저/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회중에게 후보자(들)를 믿음으로 돕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도록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이 서약을 지켜보는 증인으로서 이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격려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회중: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회중은 후보자들과 함께 역사적 기독교 믿음을 고백합니다. 니케아 신조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집례자:

여러분 이제 교회로서 함께 모여 성경에 담긴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회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집례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회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죽은 자들 가운데로 내려 가셨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 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집례자:

성령을 믿습니까?

회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례수를 위한 감사기도

집례자:

기도하겠습니다.

(물을 붓는 동안 집례자는 물 속에 손을 넣거나, 물 위에 손을 얹거나, 물을 휘젓거나, 물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옆구리로 물과 피를 흘리셨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나이다.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을 부으사 이 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물을 통하여 죄를 씻어 없애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죄 씻김을 받고, 충만한 은혜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집례자는 후보자의 머리에 물을 한 번 또는 세 번 충분히 뿌리거나, 붓거나, 또는 후보자를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하여,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 받음을 표징합니다.)

집례자: (이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집례자는 또한 기름을 발라 세례 받은 이의 이마에 십자가의 표를 하고, 안수하여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집례자: (이름)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의 표로서 십자가의 표를 받으시고,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 안에서 인치심을 받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담대히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여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이 사람을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살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성경적 거룩함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 다스리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례자가 회중에게:

이제 우리는 새로 맞이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웨슬리안 전통 안에서 기독교 제자도의 삶에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회중:

주님,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쓰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들과 나를 함께 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행하게도 하시고, 고난을 받게도 하소서.

주님을 위하여 쓰임 받게도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물러나 있게도 하시며,

주님을 위하여 높임을 받게도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낮아지게도 하소서.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채워지게도 하시고, 온전히 비워지게도 하소서.

모든 것을 갖게도 하시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도 하소서.

내가 모든 것을 기꺼이, 온 마음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과 인도하심에 맡기옵나이다.

이제 영화롭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여,

주님은 나의 것이시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또한 내가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이 하늘에서 확증되게 하소서. 아멘.

폐회 기도

집례자:

하나님의 가족인 여러분 함께 기도합니다.

회중: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손이 주의 자녀들 곧 우리 위에 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화시키는 은혜로 우리를 주의 말씀의 지식과 순종 가운데로 인도하사, 이 생애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주를 섬기게 하시고, 장차 올 생애에서 기쁨으로 주와 함께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집례자가 회중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세례 받은 *형제 자매*들을 환영합니다.

입교 예식

서문 및 개회사

(목사는 후보자와 후원자들을 예배당 앞에 초청하여 회중을 향하게 합니다. 이 예배에 세례가 포함되는 경우, '거룩한 세례 성례전'을 참조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 내어 선택하시고, 그분의 소유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분과 완전한 연합 안에서 충만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양대로 왕국을 세우려 하여, 죄와 죽음을 세상에 들여 왔습니다. “궁홀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4-9).

이 선물에 관하여,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과, 우리 주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 곧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 28:19)

입교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세례에서 선포했던 언약을 개인적으로 새롭게 고백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거룩한 교회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확인하고, 안수를 통해 새로운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계속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소개

(후보자와 후원자는 계속 회중을 향합니다.)

목사: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입교할 후보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 또는 후원자: 저는 (이름 입력)을 입교예식을 위해 소개합니다.

거부 선언과 서약의 확인

(후보자와 후원자는 계속 회중을 향합니다. 교인 가입 서약을 예전의 일부로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여, 초기 기독교의 관습과 웨슬리안 전통에 충실하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마귀와 그 모든 행위를 버리고,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거부합니까?

후보자: 나는 그것들을 거부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분을 자신의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합니까?

후보자: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담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고백합니까?

후보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악과 불의, 억압에 저항할 책임이 있음을 받아들입니까?

후보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명을 순종하며 지키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평생 그 안에서 행하겠습니까?

후보자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회중에게 후보자(들)를 믿음으로 돕겠다는 그들의 헌신을 확인하도록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이 서약의 증인으로서, *(이 사람들)*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격려하며, *(이 사람들)* *(자신들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회중: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회중은 후보자들과 함께 역사적 기독교 믿음을 고백합니다.)

입교

(후보자는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후원자는 후보자의 어깨에 손을 얹을 수 있습니다. 목사는 기름을 바르거나 또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후보자의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하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목사: *(이름)*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세례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사람들)* 강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담대히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여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이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살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성경적 거룩함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 다스리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가 회중에게:

이제 우리는 새로 입교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웨슬리안 전통 안에서 기독교 제자도의 삶에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회중:

주님,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쓰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들과 나를 함께 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행하게도 하시고, 고난을 받게도 하소서.

주님을 위하여 쓰임 받게도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물러나 있게도 하시며,

주님을 위하여 높임을 받게도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낮아지게도 하소서.

나로 하여금 온전히 채워지게도 하시고, 온전히 비워지게도 하소서.
모든 것을 갖게도 하시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도 하소서.
내가 모든 것을 기꺼이, 온 마음으로 주의 기쁘신 뜻과 인도하심에 맡기옵나이다.
이제 영화롭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여,
주님은 나의 것이시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또한 내가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이 하늘에서 확증되게 하소서. 아멘.

폐회 기도

목사: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기도합니다.

회중: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을 주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게 하시며, 이 생에서 주님을 신실히 섬기고 장차 올 생애에서는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가 회중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입교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환영합니다.

세례 서약 재확인 예식

서문 및 개회사

(목사는 후보자들을 예배당 앞에 초청하여 회중을 향하게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 내어 선택하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분과 완전한 연합 안에서 충만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양대로 왕국을 세우려 하여, 죄와 죽음을 세상에 들여왔습니다. “궁홀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4-9).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부르신 것처럼, 믿음에서 떠났다가 이제 돌아오거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신자들은, 세례 서약을 재확인함으로써 제자의 삶에 다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례받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소개

(후보자들은 계속 회중을 향합니다.)

목사: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세례 서약 재확인을 받을 후보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 또는 후원자:

저는 (이름 입력) 을(를) 세례 서약 재확인을 위하여 소개합니다.

거부 선언과 세례 서약 재확인

교회를 대표하여, 초기 기독교의 관습과 웨슬리안 전통에 충실하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마귀와 그의 모든 일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거부합니까?

후보자: 나는 그것들을 거부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그분을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합니까?

후보자: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담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고백합니까?

후보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악과 불의, 억압에 저항할 책임이 있음을 받아들입니까?

후보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명을 순종하며 지키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평생 그 안에서 행하겠습니까?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회중에게 후보자(들)를 믿음으로 돕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도록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이 재헌신을 지켜보는 증인으로서 *(이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격려하며,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회중: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또는 니케아 신조

(예배의 다른 순서에서 이미 신조를 고백하지 않았다면, 회중은 이 역사적 기독교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세례 서약 재확인 기도

목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옆구리로 물과 피를 흘리셨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나이다. 우리가 간구하오니, 이 물을 사용하여 거룩한 세례에서 부여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받는 이들이 그리스도께 합당하게 행하려고 다시 헌신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는 물로 후보자(들)의 이마에 십자가의 표를 하고,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목사: *(이름)* 그대가 세례 받은 것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사람들)* 강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담대히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여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이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살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성경적 거룩함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 다스리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를 기억하는 예식 후에, 목사는 회중을 인도하여 웨슬리 언약 기도, 즉흥적인 마침 기도를 드리게 하거나, 또는 세례 예전의 끝부분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성찬

서문 및 지침

성찬식은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거행하는 두 성례전 가운데 하나입니다(다른 하나는 거룩한 세례입니다). 존 웨슬리는 그의 설교 *산상수훈 설교 VI (설교 26 번, §III.11)*에서, 성찬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영혼에 그분의 성령의 은혜가 전달되는 위대한 통로”라고 말했습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및 성도 상호간에 누리는 사랑과 연합의 표시입니다. 성령께서는 성찬 성물을 통하여, 성물 각각의 실체는 변함이 없으나, 은혜의 수단으로서 신비롭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예전들을 사용할 때 예배의 다양한 상황과 양식에 맞게 조정될 수 있으나, 두 가지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본을 보이신 대로, 성찬의 집례에는 반드시 떡과 포도나무 열매(포도주스 또는 포도주)를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집례자는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안수받아 개체 교회에 파송되고, 그리고/또는 감독으로부터 성례 집행 권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감리교회가 열린 성찬상을 지켜 오고 있으나, 주의 만찬은 역사적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베풀어져 왔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회중에게 성찬은 회개하고 겸손과 평화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이들을 위한 것임을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을 그리스도인 세례와 제자도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 역시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성찬식의 집례는 주일 아침이든 다른 예배 시간이든, 모인 회중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안 성도들의 참석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집례자가 특별한 배려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감리교회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서, 성찬의 성물들이 믿음으로 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성례이자 은혜의 수단으로 이해합니다. 봉헌된 성물의 집례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으로서 경건하고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봉헌된 성물을 반드시 소비하거나 땅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데칸터(주전자), 성배(잔), 패튼(접시), 정화포(흰 보자기) 및 기타 성찬 기물들은 매 성례전 사이에 깨끗이 빨아서 잘 보관해야 합니다.

성찬 성례전

초청

집례자:

여러분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이웃과는 사랑과 화평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분의 거룩한 길을 걸으며 새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여;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와 이 거룩한 성례전을 받아 위로를 얻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죄를 고백하십시오:

고백

회중: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주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나이다. 회개하며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악하고 죄된 욕망을 주님 앞에 인정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지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기쁨으로 순종하며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고백을 위한 침묵-

용서

크신 자비로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 주께 돌아오는 모든 이에게 죄 사함을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건져 주시며, 모든 선함 안에서 우리를 굳게 세우고 강하게 하시며, 마침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위로의 말씀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또는

이 좋은 소식을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서로에게 평화와 화해의 표징을 나눕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당신과도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은 잠시 서로에게 평화의 표징을 나눕니다.)

큰 감사의 기도

(회중은 ‘큰 감사의 기도’를 위하여 일어 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당신과도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 드리십시오.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고유 서문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께 언제나 어디서나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옳고 합당하나이다. 주님께서는 무에서 말씀으로 창조를 이루셨으며, 주의 백성인 우리가 죄와 속박에 떨어졌을 때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좌를 둘러선 천사들과 천사장들, 그리고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룩송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나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나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거룩송 뒤에 이어지는 감사 기도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거룩하시나이다.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으시어 참 사람이 되셨나이다. 그분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사랑과 겸손한 섬김의 길을 나타내셨으며,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함으로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하고도 온전하며 충분한 희생 제물이 되셨나이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광 가운데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나이다. 또한 그분께서 이 하늘의 식탁을 제정하셔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 그 희생을 끊임없이 기념하도록 하셨음을 찬양하나이다.

성찬 제정의 말씀

(집례자가 떡을 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던 그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집례자가 잔을 들어 올립니다.) 만찬이 끝난 후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하여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내 피니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집례자가 봉헌 행위 중에 떡과 잔이 담긴 모든 그릇에 손을 얹습니다.)

회중의 응답 선포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령강림 기도

(집례자는 손바닥을 아래로 하여 성물 위에 손을 얹고, 이어 회중을 향해 손을 뻗어 성령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이 떡과 포도나무 열매의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영을 우리에게도 부으사 거룩하게 하시어 믿음으로 받는 우리가 그의 복된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장차 올 세상에서 하늘 잔치 상에 둘러 찬양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에 참여할 때까지, 성령으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옵소서.

송영

이 모든 것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그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그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됨 가운데, 모든 존귀와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는 담대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떡을 떼심

(집례자가 떡을 들어 회중 앞에서 떼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께서 우리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잔치를 지킵시다.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에는 할렐루야를 생략합니다.)

겸손의 기도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에 의지하여 감히 주님의 이 거룩한 식탁에 나아가려 하지 않으며, 주님의 풍성하고 크신 자비만을 의지하나이다. 저희는 주님의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조차 주워 담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나이다. 그러므로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게 하사, 저희의 죄된 몸이 그의 몸으로 깨끗하게 되고, 저희 영혼은 그의 가장 귀한 피로 씻겨지며, 저희가 영원히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저희 안에 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어린양

(집례자가 떼어진 떡과 성배를 들어 올리고, 회중이 이 고대 찬송에 참여하도록 초청합니다.)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떡과 잔을 나눔

(봉사자들은 앞으로 나와 봉헌된 성물을 받아 회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초청 받습니다.)

당신을 위해 주어진 그리스도의 몸, 하늘의 떡입니다.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구원의 잔입니다.

(성물 분배가 끝나면, 봉사자들은 남은 성물을 상 앞에 있는 집례자에게 돌려 줍니다. 집례자는 봉헌된 성물을 흰 천으로 덮습니다.)

성찬 후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성자이시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계신 임재로 우리를 먹여 양육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몸의 지체들이요 주의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들인 저희를 성령의

능력과 임재와 함께 파송하사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성례전 II

약식 예전

초청, 고백, 그리고 용서

집례자:

여러분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이웃과는 사랑과 화평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분의 거룩한 길을 걸으며 새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여;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와 이 거룩한 성례전을 받아 위로를 얻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죄를 고백하십시오:

회중: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주님, 저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난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새롭게 하사 기쁨으로 순종하며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소서.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나이다. 아멘.

-개인 고백을 위한 침묵-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큰 감사의 기도

(회중은 '큰 감사의 기도'를 위하여 일어 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당신과도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 드리십시오.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을 지으신 주여, 언제 어디서나 주께 지극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옳고 합당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좌 주위에 서 있는 모든 천사장과 천사와 둘러선 모든 하늘의 군대와 함께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나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나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주께서는 거룩하시며, 주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거룩하시나이다. 그분은 성육신,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주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웁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희생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그분의 몸과 피를 받도록 이 하늘의 식탁을 제정하신 것을 찬양하나이다.

(집례자가 봉헌하는 동안 떡과 잔 위에 손바닥을 아래로 하여 손을 얹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던 그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만찬이 끝난 후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하여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내 피니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집례자가 손바닥을 아래로 하여 성물 위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이 떡과 포도나무 열매의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영을 우리에게도 부으사 거룩하게 하시어 믿음으로 받는 우리가 그의 복된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장차 올 세상에서 하늘 잔치 상에 둘러 찬양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에 참여할 때까지, 성령으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그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그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됨 가운데, 모든 존귀와 영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떡을 떼심

(집례자가 떡을 들어 떼고, 이와 같이 잔도 들어 올립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께서 우리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잔치를 지킵시다. [할렐루야]

떡과 잔을 나눔

(봉사자들은 앞으로 나아와 봉헌된 성물을 받아 회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초청받습니다.)

이는 당신을 위해 주어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물 분배가 끝나면, 봉사자들은 남은 성물을 상 앞에 있는 집례자에게 돌려 줍니다.)

성찬 후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성자이시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계신 임재로 우리를 먹여 양육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몸의 지체들이요 주의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들인 저희를 성령의 능력과 임재와 함께 파송하사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 III

죽석 예전을 위한 지침

(비공식 예전이 적절한 경우를 위한 지침.)

초청

감리교회는 전통적으로 열린 성찬을 지켜 왔지만, 성만찬은 역사적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베풀어져 왔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회중에게 성찬상은 회개하며 겸손과 평화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구하는 이들을 위한 자리임을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성찬을 받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의 세례와 제자도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 역시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고백과 용서

주의 만찬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구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므로, 회중에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집례자는 공동 고백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그 다음 개인의 죄 고백을 위한 침묵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백 후에 집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중 위에 사죄를 선포해야 합니다.

떡을 들어 올리고 축복함 — 감사의 기도

감사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감사하며 드리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복음서에 나타난 전통적 순서, 곧 들어 올리고, 축복하고, 떼고, 나누는 순서를 따릅니다. 이는 설교에 덧붙이는 부록이 아니라 창조에서 새 창조에 이르는 구원의 이야기 전체를 선포하고 기념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성찬을 제정하신 복음서와 고린도전서 11:23-25의 성찬 제정 말씀을 중심으로 합니다. 감사기도는 떡과 잔 위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믿음으로 받는 이들에게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 달라는 간구로 마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임재와 은혜가 성찬의 성물을 통하여 회중에게 전해집니다.

떡을 떼어 나눔

감사기도가 끝나면, 집례자는 떡을 떼고 잔을 들어 올리며,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것과 그리스도의 피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흘리신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성물들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성례전임을 고백합니다. 그 후 떡은 회중에게 나누어 주고, 다시 상으로 가져와 집례자가 경건히 덮습니다. 집례자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봉헌된 성물은 반드시 다 소비하거나 땅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평신도 사역자가 봉헌된 성찬 성물을 분배하기 위한 예전

(평신도 사역자가 미리 봉헌된 성물을 분배할 때의 지침.)

초청, 고백, 그리고 용서

평신도 사역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웃과 사랑과 평화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거룩한 길을 따라 새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와 이 거룩한 성례를 받아 위로를 얻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십시오:

회중:

자비로우신 주여, 저희는 저희 자신의 선함을 의지하여 감히 주님의 이 상에 나아오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변치 않는 긍휼을 의지하나이다. 저희는 주께서 저희를 받아 주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나,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저희가 나음을 받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를 위한 기도

평신도 사역자:

이제 용서를 위한 기도를 들으십시오:

회중: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선함 가운데 저희를 굳세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큰 감사의 기도

평신도 사역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교회 이름 입력)의 제단에서 거행된 성찬식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임재의 신비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저희 회중이 주께 드린 것이며, 저희의 담임목사에 의해 봉헌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어 이 떡과 포도나무 열매의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사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을 우리에게도 부으사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는 우리가 그분의 복된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장차 올 세상에서 하늘 잔치 상에 둘러 찬양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에 참여할 때까지, 성령으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우리는 담대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떡과 잔을 나눔

(봉사자들은 앞으로 나아와 봉헌된 성물을 받아 회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초청받습니다.)

이는 당신을 위해 주어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는 당신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물을 나눈 뒤, 봉사자들은 그것들을 상 앞에 있는 평신도 사역자에게 돌려 줍니다.)

성찬 후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성자이시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계신 임재로 우리를 먹여 양육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몸의 지체들이요 주의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들인 저희를 성령의 능력과 임재와 함께 파송하사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음과 부활의 예식

서문 및 안내

죽음과 부활의 예식은 무엇보다도 기독교 예배로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죽음의 현실을 직면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의 상실을 애도하지만, 요한복음 11:25-26 에서 마르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을 둡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예전은 회중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서 사용하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문화적·상황적 요소를 고려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 예배 행위로서 예전의 본래적 온전함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 예전은 또한 고인의 시신이 없는 추모예배나 기타 특별한 경우에도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추가되거나 특별히 포함되는 모든 사항들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와 정통 기독교 신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배에 앞서 목사는 유가족을 만나 영적 위로와 상담을 제공하고, 정서적 지지를 나누며, 예배 준비를 함께 조율합니다. 장례식장과의 필요한 모든 절차도 예배 전에 미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예전에는 여러 본문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성경 읽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도록 가족과 상의하여 적절한 본문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음악과 기타 의미 있는 사항들도 찬양 사역자, 가족,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과 상의하여 예배의 흐름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필요하다면, 목사는 가족과 함께 장지로 이동하여 *하관 위탁 예식*(페이지 번호)을 사용해 장지 예식을 집례합니다. 전체 예배는 슬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을 신실하게 선포하도록, 따뜻한 목회적 배려와 분명한 신학적 명료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죽음과 부활 예배

모임

(회중이 예배 공간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음악이나 찬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드리는 인사

목사 또는 집례자:

좋은 소식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25-26)

(목사는 다음 성경 구절들 가운데 하나 또는 다른 본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셨느니라 (로마서 14:8-9)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닦은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욥기 19:25-27)

개회사

(목사는 다음과 같은 말 또는 다른 적절한 소개의 말을 통해 회중에게 인사하며 예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삶의 한가운데서 종종 죽음의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이기신 승리를 선포합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슬픔으로 무겁지만, 우리는 세상이 슬퍼하는 것처럼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슬퍼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름 삽입)의 삶을 기억하며 그 소망을 붙들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주께서 우리의 슬픔 가운데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과 기쁨을 불러내시며, 죽음을 넘어 부활의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개회 기도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죽음조차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과 영생의 풍성함에서 떼어 놓을 수 없음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제 간구하오니 주님의 종 (이름 삽입)을 그 생명 안으로 받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주님의 영원한 영광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소서. 성령을 보내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애도하며 기억하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그들의 삶을 주 안에서 기쁨으로 기념하게 하시고 장차 올 생명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성부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또는 찬양곡**

(목사는 고인의 가족과 상의하여 음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로, 치유, 소망,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화의 성품을 드러내는 주제들을 고려합니다.)

성경 봉독

(목사는 아래에 제시된 성경 본문을 선택하거나, 필요에 따라 다른 본문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음악이나 예배 요소들도 성경 봉독 사이사이에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봉독

이사야 25:6-9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임)

이사야 40:1-8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28-31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61:1-3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레미야애가 3:22-26, 31-33 (주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선택하시니)

욥기 19:21-27a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시편 봉독

시편 23, 27, 39, 42:1-7, 46, 90:1-12, 106:1-5, 116, 121, 130, 139:1-11

신약 성경 봉독

로마서 8:14-19, 34-39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고린도전서 15:20-26, 35-38, 42-44, 53-58 (썩지 아니할 몸)

고린도후서 4:16—5:9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라)

요한일서 3:1-2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요한계시록 7:9-17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

요한계시록 21:2-7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복음서 봉독**

(회중은 거룩한 복음서 봉독을 위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24-27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6:37-40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요한복음 10:11-16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1:21-27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1-6, 18-19, 25-27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에 대한 응답

(말씀 봉독 후)

목사: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설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음을 넘어 갖는 복음의 소망을 선포하는 설교를 전합니다.)

고인을 기리는 증언의 시간

(설교 후에 목사는 고인에 대한 기억을 기리는 증언의 시간 또는 다른 순서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응답

(회중은 사도신경 또는 니케아 신조로 응답할 수 있으며, 또는 곧바로 폐회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조 후에 성찬식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신경

목사:

세례의 은총을 이어받은 상속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녀들로서, 부활의 확실하고도 참된 소망 안에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담긴 믿음을 선포합니다.

회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며,
죽은 자들 가운데로 내려 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찬식

(성찬 성례전 [예전 I, II, 또는 III]의 '초청, 고백, 그리고 용서' 부분을 시작으로 여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찬송 또는 찬양은 성물을 나누는 동안 부를 수 있습니다. 성찬 후 기도 다음에 폐회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찬송 또는 찬양곡

(목사는 고인의 가족과 상의하여 음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로, 치유, 소망,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훈의 성품을 드러내는 주제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성찬을 베푸는 경우, 성물을 나누는 동안 폐회 찬송 또는 찬양곡을 부를 수 있습니다.)

폐회 기도

(성찬식을 받는 경우, 마침 기도는 성찬 후 기도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주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 없는 사람들과 같이 근심하지 말라 가르치셨나이다. 우리가 간구하오니, 우리를 죄의 죽음에서 의의 생명으로 일으키사, 우리가 이 생애를 떠날 때에 우리의 형제/자매(이름 입력)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같이 주님의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공훈의 하나님, 마지막 날의 부활에 우리가 주 앞에서 받으실 만한 자로 발견되어,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마태복음 25:34)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

축도

“이제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13:20-21)

(축도 후에, ‘하관 위탁 예식’을 사용하여 진행될 위탁 예식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하관 위탁 예식

(가족들을 관 가까이 모이도록 안내합니다. 목회자는 상황에 맞고 의미 있는 ‘죽음과 부활의 예식’의 부분들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말

목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1-4,12)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51-57)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디모데전서 6:7, 욥기 1:21)

(예식 순서지가 없는 경우, 목회자는 목회자 자신과 교인을 대신하여 낭독할 수 있습니다.)

목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중: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하나님께 의탁과 하관

(목사는 흠으로 돌아감을 상징하여 하관 기도를 드리는 동안 관 위에 흠을 뿌릴 수 있습니다.)

목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부활에 있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 (*이름 입력*)의 영혼을 주님의 자비로운 손에 의탁하오며, *그/그녀*의 몸을 흠으로 돌려보내웁니다. 흠은 흠으로, 재는 재로, 티끌은 티끌로. 주님의 자녀를 은혜가운데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와 *그/그녀*에게 복을 주시고 *그/그녀*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그/그녀*에게 비추사 *그/그녀*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 얼굴을 *그/그녀*에게로 향하여 드사 *그/그녀*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기도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빛이 (*이름 입력*) 위에 비치게 하시고, *그/그녀*로 평안히 쉬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가 이 생을 떠나는 날에 주님의 집에서 영원한 유업을 받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 의탁한 우리의 *형제/자매*와 함께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자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기쁘시고 받으실 만한 자로 발견되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중보자요 대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아멘.

축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위탁 예식은 고인의 가족과 함께 드리는 다른 예배나 기도로 마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결혼 예식

서문 및 안내

그리스도인의 결혼 예식은 무엇보다도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독교 예배로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으로 연합하는 것과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거룩한 연합을 기뻐하며 드리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을 증언합니다. 곧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에베소서 5:26-27) 분입니다.

이 예전은 교인들과 가족, 친구들이 함께하는 회중 예배의 자리에서 사용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문화적·상황적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기독교 예배로서 예전의 온전함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합니다. 전체 예배는 목회적 배려와 신학적 분명함 가운데 진행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배에 더해지는 모든 추가 요소나 특별한 순서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와 정통 기독교 신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예배에 앞서, 목사는 예비부부를 만나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고 상담을 진행하며 예식 준비를 돕습니다. 예식이 개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장소, 예식 준비 담당 또는 기타 기관과의 준비도 예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예전에는 여러 제시된 성경 봉독이 포함되어 있으며, 복음의 신실한 선포를 위하여 가족과 상의하여 적절한 본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음악과 다른 의미 있는 순서들도 부부 및 음악 사역자와 상의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예식 전에 결혼예식 참여자들과 함께 리허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결혼 예식

입장

(결혼 예식을 위해 신랑·신부와 혼인 행렬이 예배당으로 입장하거나 행진할 때, 찬송이나 찬양을 선택하여 부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행렬 시 회중이 일어서서 맞이하는 것, 신랑·신부의 가족을 존중하는 절차, 혼인 행렬의 관습적 동작, 기타 예식에 적절한 행위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회사

친지와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이 남자와 이 여자가 그리스도인 결혼으로 하나 되는 것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결혼의 언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며, 장차 오게 될 세상에서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예표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임재하시어 그 첫 기적으로 이 언약을 아름답게 빛내 주셨습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연합을 우리에게 보여 주며, 성경은 이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존귀히 여겨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남편과 아내의 거룩한 연합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세워졌으며,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서로의 기쁨과 위로와 도움을 나누도록 주어진 언약입니다. 또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집에서 자녀와 가정을 돌보고 세우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가볍게 여겨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거룩한 연합 안으로 이름과 이름이 이제 하나 되기 위해 나아옵니다.

동의 선언

집례자가 부부에게: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결혼의 언약에 들어가겠다는 자신의 동의를 선언하게 됩니다.

집례자가 여자에게:

(이름), 그대는 이 남자를 그대의 남편으로 맞아 결혼의 언약 가운데 함께 살겠습니까?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그를 사랑하며 위로하며 존귀히 여기고 지키겠습니까? 또한 다른 모든 것은 내려 놓고 그에게만 마음과 삶을 온전히 바치며 평생 신실하겠습니다?

여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례자가 남자에게:

(이름), 그대는 이 여자를 그대의 아내로 맞아 결혼의 언약 가운데 함께 살겠습니까?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그녀를 사랑하며 위로하며 존귀히 여기고 지키겠습니까? 또한 다른 모든 것은 내려 놓고 그녀에게만 마음과 삶을 온전히 바치며 평생 신실하겠습니다?

남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례자가 회중에게:

이 약속을 지켜보시는 여러분 모두, 이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겠습니까.

회중: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개

(해당되는 경우, 집례자는 문화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소개를 위하여 이 질문 또는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집례자가 부모 또는 후원자에게:

누가 (이 여자) 또는 (이 부부) 또는 (이름과 이름)을 기독교 결혼을 위하여 소개하겠습니까?

응답: 그의 어머니/가족과 나 또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부모 또는 후원자가 상징적 행위로 여자의 손을 남자의 손에 얹게 하거나, 문화적으로 적절한 다른 소개의 행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송, 시편, 또는 성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는 이제 집례자를 향합니다.)

축복 기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를 주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나이다. 주의 복을 구하며 나아오는 (이름)과 (이름)을 긍휼히 돌아보시고, 주의 은혜로 그들을 강건하게 하사, 참된 신실함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이 맺는 약속과 서약을 존귀히 여기며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 되심 안에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며,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 봉독

(집례자는 다음 성경 봉독 중에서 선택하거나 다른 적절한 구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봉독 사이에 노래, 찬송가 또는 예배 의식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봉독

창세기 1:26-28

창세기 2:4-9, 15-24

시편 67, 127, 또는 128

아가 2:10-13; 8:6-7

신약 성경 봉독

고린도전서 13:1-13

에베소서 3:14-19

에베소서 5:1-2, 21-33

골로새서 3:12-17

요한일서 4:7-16

복음서 봉독

(회중은 거룩한 복음서 봉독을 위해 일어 섭니다.)

마태복음 5:1-10

마태복음 5:13-16

마태복음 7:21,24-29

마가복음 10:6-9,13-16

요한복음 15:9-12

말씀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면

(결혼식은 예배의 일환이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그날의 성경 봉독에 대한 간략한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신랑 신부는 집례자를 마주 보고 섭니다. 설교는 기도, 노래 또는 찬송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응답

서약

(이제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마주 보고 서약을 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오른손을 잡고 집례자를 따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이름)는 그대 (이름)를 내 아내로 맞이하여,

오늘부터 앞으로

더 좋을 때나 더 나쁠 때나,

더 부유할 때나 더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고 지키겠습니다.

이는 나의 엄숙한 서약입니다.

(여자는 계속 남자를 마주 보고, 그의 오른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고 집례자를 따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이름)는 그대 (이름)를 내 남편으로 맞이하여,

오늘부터 앞으로

더 좋을 때나 더 나쁠 때나,
더 부유할 때나 더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고 지키겠습니다.
이는 나의 엄숙한 서약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손을 놓습니다.)

축복과 반지 교환

(집례자는 반지를 그의/그녀의 손바닥에 들고, 하나님께서 그것들 위에 복을 주시도록 구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반지들을 복 주사,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와 주께 자신을 결속시키는
서약의 표와 상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자는 집례자를 따라 말하며 여자의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웁니다. 이 서약 후 여자는 이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름)님,
나는 이 반지를 나의 서약의 표로 당신에게 드리며,
나의 모든 존재와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을 존귀히 여깁니다.

혼인 선언

(새로 결혼한 부부는 회중을 향하여 서서 손을 잡습니다.)

이제 (이름)과 (이름)이 엄숙한 서약으로 서로에게 자신을 바치고, 손을 맞잡으며, 반지를
주고받았으므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이 남편과 아내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축하의 행사, 찬송, 노래, 연합 촛불 점화, 또는 다른 예배 순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아래의 성찬식 성례전을 사용하는 경우, 주기도문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혼인의 축복

(남편과 아내는 무릎을 꿇고, 집례자는 부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회중은 기도하며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 주셔서 십자가의 길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드러내신 주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결혼의 언약을 주셔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연합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의 종들 사이의 이 연합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남자와 이 여자 위에 풍성한 축복을 부어 주사 그들이 신실함과 인내로, 지혜와
참된 경건함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축복과 평화의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그들을 모든 원수로부터 지켜 주시고, 온전한 평화로 인도하여 주소서. 서로를 향한 그들의 사랑이
마음에 새겨진 인이 되게 하시고, 어깨를 감싸는 옷자락이 되게 하시며, 머리를 빚내는 관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일과 동행을 복되게 하시고, 잠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삶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마침내 주님의 자비로 그들을 어린양의 혼인 잔치로 이끄시어 하늘 집에서 성도들이 영원히 잔치하는
그 기쁨에 승리 가운데 참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성례전

*(예배가 성찬 성례전 [I, II 또는 III]으로 계속되는 경우, ‘초창’과 ‘고백’부터 여기에 삽입하고 ‘성찬 후 기도’로
마칩니다. 신랑과 신부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첫 행위로 서로에게 성찬을 나누는 다음, 온 회중에게 성찬을
나누도록 초청 받습니다.)*

파송

축도

*(집례자가 회중에게, 집례자는 부부의 첫 입맞춤, 소개, 또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다른 순서로 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혼례 참여자들이 예배당을 떠나는 동안 또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다른 순서가 있는 동안, 폐회 찬송 또는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회중에게 일어나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도록 초청합니다.)*

교인 가입을 위한 예전

서문 및 안내

"우리가 사도 신경과 니케아 신조에서 고백하듯이, 글로벌감리교회는 거룩한 공회(보편적 교회)의 일부이다.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과 구세주로 선포되고 고백된다. 모든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성례전을 받을 수 있으며, 교인으로 서약을 하면 연대한 모든 개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2024 글로벌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 ¶410).

이 예전은 글로벌 감리교회로 교인을 받아들이는 표로 회중 예배 중에 사용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개체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인은 세례 받은 모든 사람과 믿음을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포함됩니다(2024 글로벌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 ¶411). 예배에 앞서, 목사는 후보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교인 가입을 위한 초기 면담을 진행합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후보자들은 기독교 세례의 과정을 거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모든 교인 가입 후보자들은 웨슬리안 형성과 교리 교육을 위한 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는 성경적 거룩함을 온 세상에 펼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교인 가입은 단지 지역 회중이나 교단에 대한 형식적 연대가 아닙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거룩함 가운데 자라며, 교회의 삶과 사명에 신실하게 참여하기 위한 언약적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책임 있게 제자도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속회 모임과 밴드 모임, 책임 그룹, 그리고 기타 의도적인 제자도 공동체는 웨슬리안 전통의 필수적 표현이며, 신자들이 함께 은혜 안에서 자라고 사회적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을 실천하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교인 가입 예식

서문

(목사는 후보자들을 예배당 앞에 서게 하여 회중을 향하게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 내어 당신의 소유로 삼을 택한 백성을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그분과 완전한 연합 안에서 충만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때가 이르러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양대로 왕국을 세우려 하여, 죄와 죽음을 세상에 들여왔습니다. “궁홀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4-9). 이 선물을 인하여 우리는 신실한 자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명령, 곧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마. 28:19)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글로벌 감리교회의 고백 교인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개체 교회 이름)의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이는 앞으로 나아와 서약을 하고, 평생 기독교 제자도의 삶에 대한 헌신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성령과 책임감으로, 교회의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고, 성경적 거룩함을 온 세상에 전파합니다.

소개

(후보자들은 계속 회중을 향합니다.)

목사:

(교회 이름 입력)의 교인가입 후보자들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 또는 후원자:

저는 교인가입을 위하여 (이름 입력)을(를) 소개합니다.

교인 서약

(후보자들은 계속 회중을 향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와 (교회 이름 입력)를 대표하여,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후보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합니까?

후보자: 그렇습니다.

성경에 담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고백합니까?

후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충실한 교인으로서 평생 그 안에서 행할 것을 약속하겠습니까?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로벌 감리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전 세계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름 입력*) 글로벌 감리교회(또는 [*이름*], 글로벌 감리교회 지역 교회)의 충실한 교인이 되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 및 교회 생활 참여와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증언으로 그 사역을 굳게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까?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가 회중에게:

이제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 교제 안에서 여러분에게 전해진 모든 것으로 인해 이들 새 교인들을 (*교회 이름 삽입*)에 영접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이웃 사랑 안에서 자라나며,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까?

회중: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들과 후원자들이 새 교인들 위에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회중은 손을 뻗거나 다른 기도 행위를 하도록 초청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담대히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여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이 사람*을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이자 (*교회 이름 입력*)의 교인으로서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살며,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성경적 거룩함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 다스리시는 성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가 회중에게:

이제 우리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웨슬리안 전통 안에서 (*교회 이름 입력*)에서의 기독교 제자도의 삶에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회중:

주님,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쓰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들과 나를 함께 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행하게도 하시고, 고난을 받게도 하소서.
주님을 위하여 쓰임 받게도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물러나 있게도 하시며,
주님을 위하여 높임을 받게도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낮아지게도 하소서.
나로 하여금 온전히 채워지게도 하시고, 온전히 비워지게도 하소서.
모든 것을 갖게도 하시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도 하소서.
내가 모든 것을 기꺼이,
온 마음으로 주의 기쁘신 뜻과 인도하심에 맡기옵나이다.
이제 영화롭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여,
주님은 나의 것이시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또한 내가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이 하늘에서 확증되게 하소서. 아멘.

폐회 기도

목사: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기도합니다.

회중:

전능하신 아버지, 주의 손을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얹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소서. 주의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게 하시며, 이 생에서는 신실하게 주를 섬기고 오는 생명에서는 기쁨으로 주와 함께 거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가 회중에게:

이제 (교회 이름 입력)에 들어오는 우리의 새 교인들을 환영합니다